

2022 **6**
통권 제16호

한국통일협회보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제16호

韓國統一協會報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Contents

- 04 협회 소식
- 06 4차 한백포럼
- 19 회원 경조사
- 22 동호회 활동
- 23 UCOK 마당
- 40 건강 코너



협회소식

◆ 제4차 한백포럼개최

우리 협회는 4.26(화)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르네상스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한백포럼을 개최하였다. "국민통합정부시대의 통일부 역할 평가 및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에서는 정세현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김형석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김형석 상근부회장과 이덕행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 하였다.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은 참석자간 열띤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금번 포럼의 결과는 별도 정리하여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과 공사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제5차 한백포럼은 6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참가

우리 협회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통일부에서 개최하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2010년부터 한반도의 항구적인 자유번영 및 평화 구축을 주제로 매년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한반도·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자들 및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환기시대의 한반도의 통일비전과 남북 관계”라는 주제로,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및 신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전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평가의 의미”라는 주제로 참가한바 있다. 올해는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평가와 의미”라는 주제로 참가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전/현직 공직자 바둑대회 참가

우리 협회는 (사)대한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중앙부처공직자바둑연합회가 주관하는 중앙부처 전·현직 공직자 바둑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6.25 개최되는 본 대회에 우리 협회에서는 김운수, 고성호, 홍홍주, 이창열 회원이 참가하게 된다.

◆ 통일나눔펀드 일반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우리 협회는 (재)통일과나눔에서 시행하는 2022 통일나눔펀드 일반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명은 “주제가 있는 평화투어”로서 사업금액은 3천만원이다. 사업내용은 새로운 한반도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일반주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사참여자들끼리 남북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접경지역 등을 투어하고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행사 진행에 우리 협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 한방 침구교실 운영

우리 협회는 작년 6.1부터 한방침구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매주 수요일 협회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구교실은 서상덕 이사과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원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아오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란다. (문의 : 서상덕이사 010-3043-9315)



제4차 한백포럼

[발제 1]

국민통합정부시대의 통일부 역할 평가 및 강화 방안



김 형 석
(상근부회장)

1. 문제 제기

- 그간 통일정책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동요가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7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에게 불쑥 나타난 분단을 없애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 분단과 갈등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은 대화보다는 새로운 무기개발과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통일 노력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북진 통일’은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 이후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 불원과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상호 번영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통일노력을 감안시 우리의 통일노력이 부족해서 남북 분단구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남북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이념과 민족’의 문제로 보고 정부 주도로 북한과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입장에서 다루어 왔다. 이념차이와 동족상잔의 전쟁 경험이 만들어낸 남북간 적대적 대립과 불신의 정서가 남북 교류협력을 제어하였다. 통일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당국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민간의 사소한 북한 접촉도 정부 승인제하에서 차단되면서 남북관계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통일 역량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 보다는 ‘북한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유화적 대응’으로 북한의 핵개발 등 일탈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분단 7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남한 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이산가족 보다는 분단이 익숙하고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명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졌다. 북한을 ‘골치아픈 이웃나라’ 정도로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북한과 굳이 대화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었다. 북한 내부도 변화했다. 서구문물을 경험한 ‘84년생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사회 중심이 항일혁명 빨치산 세대에서 이념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인민생활 향상 등 실리적 자세를 보이는 ‘8090세대’들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러한 역대정부 통일정책의 한계와 남북한 사회변화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통일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즉, ‘이념과 정부주도, 그리고 북한 특수성 강조’의 ‘통일 1.0시대’를 접고, ‘실용과 민간 역할 강화, 그리고 북한에게 특수성 인정 보다는 국제적 규범 적용’의 ‘통일 2.0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한다.

‘통일 2.0’시대에서의 남북관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하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필요에 의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일종의 국가연합, 'commonwealth')라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각종 대화와 교류협력은 민족과 감정 중심에서 한중관계, 한-베트남관계와 같은 실리와 국제적 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정치 군사 안보문제에 집중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북한 도발에는 관용과 예외없이 단호히 대처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한반도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의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자위력 명분을 내세운 핵실험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당국차원에서는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남북간 긴장조성을 우려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국간 대결상황이더라도 민간차원에서는 다양한 계기와 수준에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 당국과 주민의 눈과 귀를 열고 경직된 사고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당국의 단호한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지 않으며, 일탈행위를 하는 북한에 동조해서 막대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민간도 없다.

2.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필요

북한은 ‘화성포17형’ 이라고 명명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일인 3월 24일을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 대결 구도에서 강력한 핵공격 수단이자 강력한 핵전쟁 억지력으로 개발되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핵무력 강화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갈등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독자 제재는 작동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 지원으로 그다지 아프지 않다는 심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관심이 분산된 상황과 한국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핵무력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해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며, 가뜰이나 경제난에 시달려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힘을 겨루는 강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일석 이조 삼조’의 다목적 행보이다.

현재 북한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들 보호를 위해서는 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당돌함’과 함께 ‘전략적 지위’를 가진 강력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선대로 부터의 집착’을 담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유화적 접근과 ‘먼저 받고 나중에 준다’는 강경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역대 정부중 진보성향 정부는 주로 유화적 접근을, 보수성향의 정부는 주로 강경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두 가지 접근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접근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할 시기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 있고 개방된 접근’인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력을 확보해서 북한이 더이상 군사력으로 어찌해보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의 핵에 대한 일종의 ‘무력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음을 북한 지도부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대응책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무력 균형이 없는 평화는 굴종의 평화’이며 ‘핵 무기가 없는 국가는 핵공격 이전에 항복하거나 핵공격 이후에 항복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비참한 절박성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이러한 토대하에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와 ‘8090세대’의 일상생활 풍요에 대한 희망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록 하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한이 직접 협력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84년생으로 스위스 유학경험으로 이념이나 체제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서구와 같은 풍요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이 강할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미래과학자 거리 등 평양 현대화, 문수 물놀이장 개장 등 서구와 같은 모습의 현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 인구의 30% 수준으로 파악되는 '8090세대'는 '90년대 중반 대규모 식량난에 따른 북한 배급망 붕괴로 성장한 장마당을 통해 '각자도생' 삶을 경험하였고, 중국 등 국제사회 생활상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고 있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가 큰 세대라고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은 서구경험을 가진 김정은의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리더쉽과 경제적 풍요를 바라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어우러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방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2018년 이래 시진핑 중국 주석과 5번 회담을 하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같은 성장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3. 통일부 역할 강화 방안

- 효율적인 통일정책 추진 플랫폼 구축

분단 70여년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보수나 진보정부 모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하면 아무리 대결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의 제안을 수용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곤 했다. 그러다가 북한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산가족 행사를 중단하고 대결적 자세로 돌아서면 남북관계가 다시 냉랭해지곤 했다. 즉,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아쉽게도 북한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

리 스스로가 북한의 입장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라는 목표 하에 안정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일정책 추진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내 통일관련 조직 정비와 국방 외교 정보 등 정부 내 통일관련 협업 역량 제고를 통해 정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90년대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 법체계를 개정해서 민간차원 교류협력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결과를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참여 민간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조성 역할을 확대하고,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합의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민간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소위 ‘남남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보수 진보, 민관,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과단성있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거나 약한 상황에서 전시성으로 속도에 치중해서 어느 일방의 입장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서두르기 보다는 상황을 보아가며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목표가 실종되지 않게 진중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여야 대표, 민간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한반도통일위원회』에서 통일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조율 및 공감대를 확보하고, 산하에 ‘통일정책당정 협의회’를 두어 통일정책을 수시로 협의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발제 2]



이 덕 행
(운영위원 고려대특임교수)

국민통합정부 시대 통일부의 역할 평가 및 강화 방안

이덕행

1

01 통일부의 창설과 변천

- 연혁

- 1960-70년대 :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중점
 - '69.3.1 국토통일원 개원 (45명)
 - '72.5.1 통일연수소 개소
- 1980년대 : 남북회담 기능 추가
 - '80.10.20 남북대화사무국, 중앙정보부로부터 편입
- 1990년대 : 통일정책 총괄조정, 교류협력, 탈북민보호 기능 추가
 - '90.12 통일원으로 개칭, '98.2 통일부로 개편
 - '95.1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99.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2

01 통일부의 창설과 변천

• 연혁

- 2000년대 이후 : 교류협력 관련 기능 확대
 - '03.11 남북출입사무소
 - '04.10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 '16. 9 북한인권기록센터
 - '18. 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 외교부에 '04.2월 북핵기획단, '06.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설치

3

01 통일부의 창설과 변천

• 현재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총 정원 611명(본부 275, 소속기관 8개 336명); 산하 공공기관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예산: 일반회계 3299억원('21년), 남북협력기금 1조2400여억원
- 소관법률 11개,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합의서 13개

4

02 북한에 대한 시각/대북·통일 정책의 변화

- 북한에 대한 시각의 변화: 적·동포(동반자), 국가 여부
 - 대한민국 헌법 3조(영토조항), 국가보안법, 형법
 - * 독일 기본법 23조는 기본법 '적용범위'를 서독에 국한, 이외 지역은 연방에 편입될 때 적용
 - 대한민국 헌법 4조('87년 제9차 개헌), 총 11개 법률, 13개 남북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 남북관계발전법 3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5

02 북한에 대한 시각/대북·통일 정책의 변화

- * 북한: 하나의 조선
 - 남북관계는 당 통전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미관계 외교부)
- * 동·서독:
 - 서독: 전독문제성('49) → 내독관계성 및 전독문제연구소('69.10)
 - 동독: 내독무역성, 국가사무처 → 대외무역성, 외무성;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라는 논리 관철을 위해
- 중국·대만: 하나의 중국
 - '91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설립

6

02 북한에 대한 시각/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

- 대북·통일 정책 변화 개요
 -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 존재, 북한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
'대화없는 대결' → '대화있는 대결'
 - 1980년대 말 북방정책 추진 이후 사실상 1민족 2국가론에 기초, 대화
및 교류협력 정책 추진
 - 북한의 핵개발(1차 핵실험 '06.10.9)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 평화/ 통일

7

03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0개항 시범사업 추진 제안
- 노태우 정부 : 7.7 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3기조)
- 김대중 정부 : 대북화해협력 정책(포용정책 or 햇볕정책)
 - 3대 원칙: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
 - 6.15 선언, 3대 경협사업(금강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추진 등

8

03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 정책
 - 대북 포용정책의 승계
 - 핵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동북아경제중심 국가(중장기)
- 이명박 정부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
 - 북핵문제 해결 우선 추진
 - 북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 실질적 관계 발전을 통해 통일기반 마련

9

03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 3대 통로(환경, 민생, 문화) 제안
- 문재인 정부 : 한반도 정책
 - 정책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10

04 지난 5년간 정책 성과

-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등
 - 총 28회 회담('18) 및 남북 정상 친서교환 14회, 북미 회담·면담 중재
- 당국간 연락 채널의 중단과 재개
 - 남북연락사무소 개소('18.9) 및 폭파('20.6), 남북 연락채널 중단과 재개
- 북한의 과격한 발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산가족 추가 상봉 무산 등
 - *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 누적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 재개 금년 ICBM 등 13회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준비 등

11

05 향후 강화 방안

(1) 대북 이니셔티브 유지

- 신정부 대북·통일 정책을 조속 수립, 대북 제안 지속 의견 수렴 및 정책 조율 등을 거쳐 정책을 신속히 수립, 북한에 대해 계기별·정기적 제안 검토

(2) 정책 범위 확대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 안보 이슈 해결방안 적극 검토 더 이상 북미관계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특수성) 차원에서 해결방안 마련
- 통일부에 부여된 모든 업무 충실히 수행 교류협력·대화 이외에, 북한인권·북한이탈 주민 등 적극 추진

12

05 향후 강화 방안

(3) 절차적 정당성·중립성 확보

- 의견수렴(국민, 전문가, 유관부처, 해외), 통일고문 등을 다시 제도화 **정치적 영향력 축소 및 (과거 대북전단 사례 등) 졸속 결정 탈피**

(4) 조직 개편 검토

- 북핵 및 안보문제 전담 부서 신설 등 검토 **교류협력실을 축소 개편, 북핵 및 안보 담당 조직 강화**

* 한반도평화교섭본부(북핵기획단)과의 업무 조정·협조 등 검토

13

감사합니다

14



회원 경조사

◆ 삼가 고인의 冥福을 빕니다.

이영국 회원 빙모 별세(3.2)	김남식 전 차관 모친 별세(5.2)
김광희 운영위원 부인 별세(3.22)	김순옥 회원 모친 별세(5.9)
신영옥 회원 부친 별세(4.7)	김경태 운영위원 별세(5.13)
나웅배 고문 별세(4.25)	

◆ 자녀의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신재표 운영위원 장남 결혼(6.11)	배광복 운영위원 아들 결혼(6.18)
----------------------	----------------------

◆ 왕성한 활동을 축하 드립니다.

한안석 운영위원, 저서 출간 “미꾸라지의 사명”(쿠팡출판사)
김덕중 운영위원,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초청 강연

◆ 회원 경조사 연락 안내

회원님들의 가정에 경조사시 소정의 경조금(화환)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 자녀 결혼: 10만원 또는 花環 * 본인 별세: 20만원(弔慰金 및 弔花)
- * 부모·배우자 별세: 10만원 또는 弔花 * 빙부모 별세: 협회 弔旗 비치

❖ 회비 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통일부 등 외부 기관단체의 일체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회원 경조사 및 친목,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각종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年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운영자문단 50만원, 이사 및 감사 30만원, 운영위원 15만원, 일반회원 5만원**입니다. 협회 정관(제6조)은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안내 ♥

○ 농 협	0 3 2 - 0 1 - 1 8 4 1 3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체 국	0 1 0 0 4 1 - 0 1 - 0 4 4 0 5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리 은 행	1 0 0 6 - 4 0 1 - 4 3 6 6 6 2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회비 납부 현황(2022.1.1.~5.24)

직 책	회 비	납부 현황
고 문	임의	임동원(100)
명예회장	100만원	서극성(100)
회 장	100만원	정세현(100)
부회장	50만원	김형석(50), 김중태(50)
운영자문단	50만원	양영식(10), 김남식(100)
이 사	30만원	이무일(30), 변만근(30), 김충환(30), 박희봉(30), 이준우(30), 곽병채(30), 김영도(30), 정부락(30), 조규봉(30), 이용현(30)
감 사	30만원	이강락(30), 장상호(30)
운영위원	15만원	박경석(15), 이달형(15), 서두현(15), 송기영(5), 원기선(15), 하장춘(3), 한상학(15), 박정훈(5), 한국통(15), 전연숙(5), 윤경태(5), 권영범(15), 김영상(15), 진준남(15), 김용환(15), 김광희(5), 여운산(5), 황병일(5), 김창수(15), 김용규(15), 전홍기(15), 문대근(15), 김석진(15), 김덕용(15), 손현진(10), 최정수(10), 신재표(15), 김용규(15), 안진용(10), 천창기(15), 김희진(15), 윤정원(15), 이덕행(15), 유재윤(15), 송병각(15), 김한국(15), 천창기(15), 한안석(15), 김명영(15)
일반회원	5만원	이동우(5), 권완규(5), 정희재(5), 조동규(5), 이영범(5), 신영욱(5), 최우섭(5), 전윤태(5), 고성용(10), 황의준(5), 김대경(5), 권한춘(5), 박선미(5), 정세진(5), 정광석(5), 이영국(5), 신광미(5), 무 명(5), 김명자(5), 이동호(회)(5), 김병옥(5), 김병수(5), 임순희(10), 조순자(10), 권진호(5), 김구용(5), 김순옥(5)
준회원	2~50 만원	
합 계		85명 / 1,508만원

*찬조금 : 김순옥(30만원)

*광고협찬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2,000,000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456,000원)



동호회 활동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5.19 산우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마음으로 늘 같이 하시고 자주 연락하심으로 돈독하고 우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현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동호회명	회장	모임/장소
산우회	김원호	매월 셋째 목요일 *5.19(목) 10시-2시 서대문 안산 자락길(7km) 탐방 *참석 : 김원호, 이준우, 조종남, 김영상, 전홍기
골프회	이재호	매월 첫째 화요일,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
기우회	김용재	매월 둘째 목요일, 한국기원(종로3가) 14:00
기독신우회	이정수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들꽃모임	온경성	짝수 월(격월) 둘째 주 화요일
한마음봉사단	김명영	매월 첫 월요일 11시-14시 (강북구노인종합복지관)
七夕會	김영일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
상록회	조영규	월 2회 짝수 주 토요일
초수회	임태순	매월 첫째주 수요일
白雲會	김석진	매분기 둘째달 셋째 화요일
통마회	김영남	매분기 마지막 달 둘째 화요일
두목회	김의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금회		격월(홀수 월) 둘째 주 금요일
통우회		수시
교육(주)		수시
통친회		격월



UCOK 마당

수 필

표 절



김 진 구
(운영위원, 중국여행가)

‘표절’이라면 많은 분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의 단골 메뉴를 떠올리시겠지요.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그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 고교(지금은 인문계로 바뀐 남녘의 B商高) 시절 저는 수학 과학 주산 부기 등 상당수의 과목이 별로였지만, 국어 영어 같은 어학에는 흥미가 있었고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古文 시간에 漢詩 한 수를 접하고 웬지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 제목과 작자도 모른 채 마냥 암송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花開昨夜雨 (화개작야우)

花落今朝風 (화락금조풍)

可憐一春事 (가련일춘사)

往來風雨中 (왕래풍우중)

며칠 전 갑자기 과거의 시가 떠올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휴대폰 이용)에 첫 구절을 넣고 검색해 보니, 제목이 ‘偶吟’(우음: 즉흥적으로 읊조림)으로 조선 선조 때 雲谷 宋翰弼(송한필, 1539?~1594?)이란 선비가 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미흡한 한문 실력이나마 간단히 작품 해설을 해 보자면, 이 시는 형식상 五言絶句로 起承轉結 구조와 押韻法(압운법)을 전형(모범)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1) 起, 일으키고(화두)

花開昨夜雨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2) 承, 잇고(계승 및 발전)

花落今朝風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도다

3) 轉, 굴리고(흐름의 전환)

可憐一春事 가련할손 한 마당 봄날의 일이어

4) 結, 매듭(마무리)

往來風雨中 비바람 속에 오락가락하는구나

그리고, 압운법으로 제2구 말미 風(-ng)과 제4구 말미 中(-ng)의 동일한 脚韻을 넣어 운율성(음악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절제되고 깔끔한 풍취의 한시를 음미하면서 知的 도취에 빠져들던 중, 불현듯 중국에 비슷한 내용의 시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중국의 검색 엔진(百度, <https://www.baidu.com/>)을 열어 대륙 간체자로 ‘花開昨夜雨’를 입력하고 키를 누르니, 다음과 같이 출력되었습니다.

“花開昨夜雨 花落今晨風 可憐一春事 都付風雨中。这是范成(宋)的诗。”

번체자(正字) 및 우리말로 번역하면,

“花開昨夜雨 花落今晨風 可憐一春事 都付風雨中. 이는 宋나라 范成(범성)의 시이다.”

중국의 시를 조선의 것과 대조해 보니 딱 세 글자가, 곧 제2구의 朝(아침 조)가 晨(새벽 신)으로, 제4구의 往來(왕래)가 都付(도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바람이 ‘새벽’ 바람으로, 풍우중에 ‘오락가락한다’가 풍우중에 ‘모두 맡긴다’로 대체되었지만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범성은 송나라(960~1279년 존속) 사람이라 하고 조선의 송한필은 1539년생으로 추정되니, 중국 측 자료에 따를 경우 **범성의 시가 최소 260년 이상 먼저** 창작된 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중국 검색 엔진을 돌려 范成을 찾아보니, 1) <삼국연의> 중 조조의 부하(洛陽令 벼슬), 2) 명나라 海南范氏 시조, 3) 청나라 말기 승려의 3인 이외에 4) 南宋 詩人 范成大가 나오는데, 이 범성대가 범성과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한국 포털 naver와 daum을 검색해 봐도 시인 범성과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추가적인 정보 자료 획득이 한계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 조선 宋翰弼과 송나라 范成이 각각 지었다는 시의 유사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1) 송한필이 **범성의 시를 표절**하였다. 아니라면, 중국 시를 단순히 인용(몇 자 다르지만)한 것을 놓고 주변인이나 후손들이 고의 또는 착오로 송한필의 작품이라고 기록하였다.

2) 반대로, 사실은 **제3국의 음모**(동북공정의 일환?)이다. 어떤 중국인이 수준 높은 조선의 시를 몇 자 고쳐서 슬쩍 인터넷에 올려 놓고 저희들 작품이라고 自家發電하는 중이다(중국에도 어마무시한 오리지널 名詩들이 차고 넘치는데 구태여 왜..... 필자 생각).

3) **우연의 일치**이다. 漢詩의 형식과 소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진실을 발굴한답시고 조상의 지적 재산권을 타국인 소유로 넘기는 짓을 해서야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은 그냥 **조용히 덮자**.

定說이나 通說을 뒤집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충분한 반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계에 서는 자기 주장에 배치되는 다수 자료는 기각하고 유리한 일부 자료만 편면적으로 부각시

켜 가볍게 통설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론적 밀천이 짧고 스펙이 딸리는 유사(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이는 행태로 여겨 집니다.

인터넷에서 한두 가지 다른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기존 학설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자연과학에서는 단 1건의 반증으로도 가능하지만 인문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하지요). ‘偶吟은 조선 송한필의 작품’이라는 명제는 송나라 范成의 실존과 그의 시가 실린 原典의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실 확인 작업은 수많은 국문학자나 고전 연구자들 중 누군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까. <完>



順天사람(6)



최 승 호
(운영위원)

나는 퇴직 후 한 동안 세상과 隔絶하고 풀과 나무와 하늘 그리고 동양고전을 벗 삼아 나를 지키며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와 사색의 시간에 가끔은 문득 고난이 동반 된 반갑지 않은 옛 추억들이 회상되었고, 때로는 人生황금기의 원망스런 惡運否塞(악운비색)을 嗟歎(차탄)하면서 고달픈 인생이 시대를 원망하는 푸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매우 인간적인 그러나 부질없는 想念들이 엄습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1. 왜 하필이면 ‘68년에 1.21사태가 있어 서책과 담을 쌓는 만3년의 兵役이 있게 되었는가?
1. 왜 나의 사회활동기는 박정희/전두환 一尊시대와 겹쳐 있었던가?

의정부 녹양동으로 이사 온 후 나는 근육消失예방과 폐활량제고를 위해 인근 경민대학 뒷산의 한적한 숲길을 자주 등산했습니다. 이 등산길은 특별히 맑은 공기와 安穩함이 있었고, 山頂上은 옛 미군주둔지였던 곳으로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위치한 사패산의 山景을 展望할 수 있는 適地였습니다.

미군유적지의 견고한 콘크리트 초소와 내무반 벽에는 병사들이 페인트와 쇠붙이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표현한 낙서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도 맹호부대(혜산진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일원으로 戰場의 다양한 지형(密林계곡, 늪지 및 高地)에서 死線을 넘는 작전에 참가했고 당시 중대단위의 Home Base는 고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면 미군의 고생을 易地思之했습니다. 그 때마다 등산의 동반자인 心友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助言을 속삭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한 눈 팔지 말라(不息寸陰).

歸國初心처럼 항상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常時感恩活着).

세상에 나온 서책 중에는 난해한 서책들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周易”(The Book of Changes)입니다. 이 서책의 64 卦辭(괘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요지는 변화철학입니다.

The only constant is change.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다.-만들어진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변한다.”

인체는 변화하고 회복되는데 그 골격조직도 주기적으로 再형성된 형성세포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집니다. 의료와 간호 및 영양보호는 이 命題를 기초로 성립합니다.

인체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사회 및 사회구성원의 생각도 변화합니다. 執權을 결정하는 유권자의 票心도 감정적 스트레스, 사회적 상황 및 개인역사에 의해서 변합니다. 사실 民心의 가변성, 시장의 유동성 및 계층의 이동성은 건전한 자유민주사회의 토양입니다.

우리는 세상변화에 적응하려고 개인은 부단히 학습하고, 의회와 정부(관료)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法制와 정책을 개선하고 誤判을 수정하며, 판사는 법의 해석적용에 世間忘却性이 없도록 “시대변화”에 고민합니다.

사회변화의 主役인 接續怪物(컴퓨터와 휴대폰)이 年長者들을 強打하는 시기에 퇴직한 나는 빠르게 변하는 情報社會에 적응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覺醒은 적중했으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인간이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恒常 너무 늦었을 때다.”라는 警句의 대상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心志를 굳게 하여 세상과 接續하는 怪物을 활용하는 기능을 연마하려고 克己와 人百己千의 好學精神으로 배움과 自習에 안달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그 진행이 막힐 때는 이를 突破하려고 不恥下問을 실천했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三人行必有我師焉)라는 훈도를 체험해 마지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 先傾聽하고 後取擇했습니다.

나는 우선은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는 연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응대하면서도 손은 打字機를 두드리는 타이피스트의 神技를 수 없이 보아 왔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무딘 손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internet surfing을 하면서 打字연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선일보(조선닷컴컴퓨터)가 개설한 ‘독자마당’과 김대중팬클럽이 운영하는 ‘DJroad’였습니다.

조선일보(조선닷컴컴퓨터)의 독자마당은 조선일보가 活力이 넘치는 자유를 표방하

며 마련한 시민사회토론공간으로 많은 논객들이 熱血을 뿜어내는 大洋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김대중에 대한 공세적인 Frame를 만들어 놓고 비하, 혐오 및 헐담을 하는 논객들의 matador가 주류를 이루고 그 내용으로 보아 그들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정보기관에서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造作하는 흑색선전 업무를 수행했던 괴벨스型 Localist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다소 흘러 마음에 딱지 않은 광주민주항쟁을 다시 덧나게 하는 極惡無道한 天人共怒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분노로 응수하는 소수 논객의 글들은 너무 흥분되어 차분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本名으로 이곳 글 마당의 흙탕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 때마다 瀉心祛熱(사심거열 : 흥분을 가라앉힘)의 마음으로 頭括式 혹은 尾括式으로 언필칭 高談峻論의 글을 posting해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DJroad”는 삶의 궤적과 지향점 및 思惟의 결이 유사한 文士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올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激情이 없는 起承轉結의 논리적 글 마당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看書痴生”이란 筆名으로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조 정조 때 규장각에서 일하던 李德懋(이덕무)가 스스로를 독서인이라고 규정코자 “看書痴”라고 自稱하였는데 내 필명은 여기에 “生”字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2002년에 “DJroad”에 大選관련 時事評論으로 posting한 내 글에 “차떼기”란 用語를 사용했는데 도하신문이 이를 記事에 인용한 것을 보고 인터넷의 정보 확산 속도가 가히 光速이라고 느끼며 大驚失色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우간 나는 이 두 인터넷 마당에서 打字速度의 提高라는 목표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어쭙잖은 타자실력으로 나의 創發의 생각을 高揚하고 논리에 날(刃인)을 갈고 다듬는 筆力수련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사적인 노력으로 사회접속怪物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때 다행히 한문선생 자리가 나타나 나는 세상과 담을 쌓은 蟄居의 생활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공기를 마시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또 하나 세상변화의 적응이라고 생각하여 새롭게 出市되는 컴퓨터와 휴대폰만은 계기적으로 改備하여 왔습니다.

컴퓨터 改備는 가각본을 直講교재로 身分上昇시키기 위한 문서작업의 고려 때문이었고, 휴대폰 upgrade는 많은 수강생들과 정서적 network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각본 제작은 사물과 세상에 대한 확대된 시야와 인생의 지혜로운 언어(깨우침)를 가족, 친구 및 지인들과 공유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茶山(丁若鏞)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500여권의 서책도 안목과 통찰력을 지닌 명민한 후학들이 이를 출판하기 전까지는 본시 각본이었습니다.

내가 積功하여 쓴 한자 및 한문학습 각각본들은 당초 私的 製作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교실에서 배포되고 受講大衆이 휴대하는 서책이 되었으므로 (등록출판사의 출판물은 아니지만) 책표지에 책명과 저자명 및 출판사 이름을 제시하는 구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물론 paper company인 “녹양한문교실”로 정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현학적인 설명을 삼가며, 편집용지 및 字體의 point 그리고 行間과 字間의 경제적 관리에 주의하여 서책이 크고 두꺼워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최초로 어렵게 엮은 각각본 검 直講교재는 “초급한자”였으며 초고 원고를 인쇄소에 E-mail로 送稿하였더니 그들은 원고에 기술적인 수정을 가해서 return mail로 나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되어 인쇄소에 갔을 때 세상에 유일한 나의 서책이 벌써 제본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나는 呱呱之聲(고고지성)하는 내 책과 상봉한 환희를 누리는 한편 이런 놀랍고 신기한 정보사회의 도래를 기뻐했습니다.

나는 高大後門과 을지로 3가에 있는 인쇄소를 자주 출입하며 각종 한문 및 한자의 각각본과 直講교재 그리고 “反復의 回避”(수필집), “요양보호노트”, “가족요양”등의 각각본들을 인쇄하였습니다(총30종). 빈번한 인쇄소 출입은 컴퓨터 조작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capture와 scanning技法 등을 활용하여 서책을 더욱 알차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책 제작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정보화 進展과정을 체험하면서, 이런 황홀한 세상을 여는데 先導的 역할을 한(私見) 金大中 대통령을 흠모하고 지금은 彼岸(無何有之鄉)에서 평화를 찾은 그분을 추념하면서 명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동시에 나는 우리의 현대사가 “사실의 기록”으로 된 점을 크게 批判하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通史를 문장에 비유하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風味 없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여기에 인간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 부사어를 첨가하여 生氣를 넣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사건의 순서”를 유추하면서 당시 시대를 산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 속에서 隆起(湧起)한 힘의 진동과 파장 그리고 인간적인 생생한 이야기도 포함된 서술적 역사(graphic history)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양념이 들어간 서술적 歷史書는 손에 들면 완독할 때까지 놓지 못하는 마력을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이런 類의 역사서를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소설 “Lady Chatterley's Lover”의 作家 David Herbert Lawrence가 옥스퍼드대학의 의뢰를 받아 집필한 “Movements of European History”입

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런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역시 김대중은 “사실의 기록” 속의 인물이 아니라 서술적인 역사 속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私見).

지금 김대중의 정치적 삶을 회상할 때 “공동체의 大義”를 向한 死鬪 외에도 두 가지 爲國愛民의 노력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전환시킨 The third Wave 추진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 극한대치의 분단 상황을 다소나마 완화시킨 Peace times의 개척일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통일부 직제 신설 포함)이 국내통치의 안정유지라는 小我的 동기에 종속되었다면 김대중의 대북정책은 남(國民)과 북(爲政者)을 향한 “세상변화의 추구”라는 거대한 大我的 담론이고 이정표였으며 시대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새로운 역사창조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發進시킨 “세상변화의 추구”는 색감이 좀 강렬하지만 방향의 時宜性(전쟁으로부터의 해방)과 내용의 보편성(민족동질성회복)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異見이 있지만).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匿情(익정)과 강대국의 입장 그리고 남북한의 상호작용(transactions)이 만들어 낼 많은 무늬와 굴절들이 있을 지라도 김대중의 “思惟世界”에 대한 後學들의 높은 관심과 연구는 不遷不易(불천불역)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소위 主攻路지역인 동두천과 양주 및 의정부 그리고 助攻路 지역인 일산과 파주 등 접경지역의 驚天動地할 도시 확장세와 인구유입은 김대중이 南(國民)을 향해 외쳤던 세상변화 추구(對北 자신감에 입각한)의 顯示이며 實證입니다.

영국의 Winston Churchill은 “제2차 세계대전”이란 저서로 비창작(기록)문학에서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3가지 용기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남에게 미움 받는 용기’이었습니다. 이 용기는 아마도 자신의 용기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나만 그 정도의 용기는 ‘인생을 否定당하는 치욕’을, 그것도 품격을 유지하면서 감내한 용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을 부정 당하는 치욕’을 감내한 용기는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았던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던 진정한 인내였기에 더욱 우리들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日帝 강점기에 활동하신 많은 독립투사들과 독재정권시대의 민주인사들은 ‘인생을 부정당하는 치욕’을 감내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후세에 “史記”를 저술했던 사마천 같은 출중한 역사가가 출현하여 20세기 한국의 “勇者列傳”을 집필한다면 인간 김대중의 人生記도 選錄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手定한 『詩經』의 詩歌는 현재 305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서책은 유교경

전이지만 중국 詩문학의 起源으로 매우 중시되는 고전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맹자』의 盡心章下에서 “시경” 國風(邶風)편의 詩題 ‘柏舟’에 나온 소절과 “大雅편”의 詩題 ‘綿(면)’에 나온 小節을 발췌, 인용하여 공자님과 周 왕조를 창업한 文王이 생전에 소인배들로부터 배척과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두 先人을 추모하고 변호했습니다. 나는 “맹자”를 강의하면서 맹자는 ‘詩에는 암울한 시간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向心의 대상인물을 추모하고 변호하는 마음을 vibrantly 하는 感興이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맹자가 자신이 소인들로부터 비난,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自慰하려고 “시경”의 詩들에서 治心에 도움 될 소절을 발췌, 인용했다는 점도 간파했습니다. 나는 2018년에 “의정부 복지관”에서 “시경”의 해당 詩들을 逐次강의하면서 엄혹한 정치, 사회 및 언론 환경에서도 인류역사발전의 定向인 “자유의 擴大”와 “민주주의 前進”를 추구한 絶世의 민주인사 김대중의 안타까운 인생역정이 overlap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後廣(김대중)을 추모하고 변호하는 마음으로 내 나름의 詩題를 채택하고 맹자가 인용했던 두 소절을 묶어서 第3의 詩를 만들어 강의한바 있습니다.

我心向偉人

憂心悄悄(우심초초)

My heart is disquieted and grieved,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네.

慍于群小(온우군소)

I am hated by the crowd of mean creatures.

못 소인들에게서 노여움을 사서.

肆不殄厥慍(사부진귄운)

Though he did not remove their wrath,

결국에는 그들의 노여움을 없애지는 못했으나

亦不隕厥聞(역불운귄문)

He did not let fall his own fame.

그는 그 자신의 명성을 잃지는 않았다.

-끝-

유튜브 활동



윤 현 중
(운영위원)

2018년 상반기를 끝으로 통일부를 떠난 전 직장 동료 윤현중!

유튜브에서 한국현대사 100장면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민족 해방이 일본을 항복시킨 미국의 핵폭탄 두 발에 의한 것이라는 강의로부터 1960년 이승만정부가 무너지는 기간까지 총 100편의 주제입니다.

현재까지 90편을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채널 제목은 '윤현중의 한국현대사'

채널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hannel/UC9Ke75cFB7iGWFG3tKm_deA

유튜브에서 검색어 '윤현중' '윤현중의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100장면'을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를 하게 된 동기라면 아무래도 정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역사 해석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 회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YTN 뉴스를 보는데, 그때도 아마 어느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맞은 듯했는데 역사 재해석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뉴스가 나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의 사건, 지나간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썰러리맨이 생각해도 이걸 너무 심하다.

그랬던 것이 어쩌다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원고나 시나리오에 있을 때부터 관련 역사책, 증언, 자서전 등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온 것이 있고 특히 일 년이란 공로연수 기회가 주어져 원고를 많이 가다듬어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어 현대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주제이므로 개인적인 추천을 한다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관심이 가거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뵈기를 기대하며, 보시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연 활 동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강연(4.9)



김 덕 중
(운영위원)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며 더욱 튼튼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9일(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가 준비한 3차 평화통일강연회에서 정치학자인 김덕중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형이므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더욱 강한 동맹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표면적인 이유는 나토가입 반대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여 전쟁을 불사한 것. 김덕중 박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표면적 이유 외에 러시아가 ‘베어 트랩(Bear trap)’임을 알면서도 자진해서 들어간 형국이라는 정치적 분석을 내놔다. 다른 정치학자인 김선래 교수의 글을 인용한 김 박사는 “미국이 짜 놓은 판에 러시아가 알면서도 뛰어든 전쟁으로, 전쟁을 불사해도 러시아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리적 이익 계산이 뒷받침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오히려 기다린 형국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앞서 돈바스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국가안보팀 주도로 타이거팀을 구성했고, 이는 전쟁을 예견한 미국다운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즉각적인 러시아 제재에 돌입했고 전방위적으로 금융 및 수출입 재제를 가함으로써 러시아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며 전쟁 이전부터 미국의 언론들은 연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기 보도를 쏟아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덕중 박사는 “전쟁 발발로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무기판매가 활성화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활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베어트랩이라고 해도 전

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고 미국은 무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길들이기’에 돌입하면서 결국 피해는 이유 없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망가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입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의견이다.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는 초토화된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대국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했지만 다시 전쟁이 날 경우 한반도와 한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은 상당하다. 따라서 김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토대로 한반도에 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동맹국가가 아니었다. 서면을 통한 확실한 동맹국 관계가 아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보다 한미 양국은 상호 동맹국임을 문서화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동맹국가인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 김덕중 박사의 말이다.

김덕중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개막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평화협정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은 미국과 더욱 강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덕중 박사는 평화통일강연회에 앞서 휴스턴 한인사회 리더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조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도 자문 역할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漢詩

在宅隔離(재택격리)



淇竹 金錫珍
(운영위원)

陽春染疫體衰殘

양 춘 염 역 체 쇠 잔

이 따뜻한 봄날 역질에
감염되어 몸이 쇠잔한데

在宅隔離堪耐難

재 택 격 리 감 내 난

재택 격리되니 감내하기
어렵네

終日獨居看畫臥

종 일 독 거 간 화 와

온종일 홀로 지내며 누워서
영화(TV)나 보고

隨時自活讀書盤

수 시 자 활 독 서 반

수시로 자활하고 독서하며
서성거리네

役員問診傳方藥

역 원 문 진 전 방 약

보건원은 전화로 물어 진료
약을 처방하여 전해주고

家族回生給料餐

가 족 회 생 급 료 찬

가족들은 빨리 회생하도록
음식을 요리해 보내주네

早速快差除解束

조 속 쾌 차 제 해 속

조속히 쾌차하여 구속에서
해제되어

祈求康健復常歡

기 구 강 건 복 상 환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네

書 畫

삶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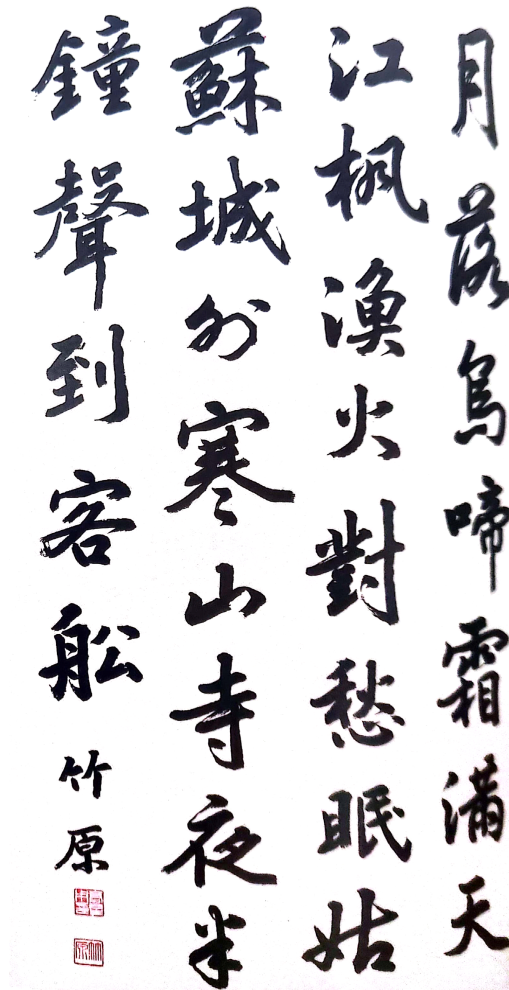


고성용
(서화가)



楓橋夜泊(풍교야박)

장계의 시 읊김



<작품 해설>

월락오제상만천

달이 지니 까마귀 울고 서리 가득한데

강풍어화대수면

단풍에 고깃배 불 어리어 잠 못 이루네

고소성의한산사

고소성 밖의 한산사

야반종성도객선

깊은 밤 종소리 나그네 뱃전까지 들리네

장계(張繼, ~779년경, 자는 의손(懿孫))는 중당의 시인으로 대력 연간(大曆年間, 766-779)에 조정에 들어가 검교사부랑중(檢校祠部郎中)에 이르렀다고 한다.

위 시는 문학비평가 김희보의 “중국의 명시”에 실려 있는 것을 읊김 것으로, 시인은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으나 장안에서 과거에 수차 낙방하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풍광이 수려한 소주 변경 풍교와 한산사 부근의 강가에서 하룻밤 묵으며, 실의에 빠진 나그네의 쓸쓸한 가을서정을 읊은 것이라고 한다. 장계는 시를 몇 편 짓지 않았다는데 이 한수의 시가 가을의 쓸쓸한 정서를 절묘하게 표현하였다하여 유명해지고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 실릴 정도였다고 한다.

無題(인물연필화)



김동배
(서화가)





건강코너

전립선비대(前立腺肥大)



서 상 덕

(이사, 한국정통침구학회 정회원)

전립선비대(이하 전립선)는 남성에게만(여자는 전립선이 없음) 있는 병으로 중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배뇨장애이다. 보통 속설로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전립선비대 관련 증상을 갖는다고 하며, 많은 남성들이 관련 질환으로 고생을 한다. 증상은 초기에는 오줌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지는 정도이나 점차적으로 오줌이 나오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배에 힘을 주어야 겨우 나오게 된다. 이 같은 증상을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져 신(腎) 즉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것은 사실 전립선비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점차 오줌 줄기는 더 약해져서 오줌이 발등에 떨어질 정도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지를 요도 밑에 대고 소변을 보는 것이 옷에 오줌을 안 적시게 하는 한 방법이다. 또한, 밤에 오줌이 잦아서 몇 번이고 일어나게 되는 빈뇨(하루저녁에 잠들고 나서 2번 이상 소변) 현상이 나타나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오줌을 누 후에도 방광에 오줌이 남아있는 잔뇨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잔뇨가 많아질수록 방광의 활동량은 적어 배뇨량은 줄고 배뇨횟수는 많아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립선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매일 알약(소팔메토 등)을 복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고, 좀 시간이 경과 하면 하루에 두 알 정도 복용하게 된다. 초기에는 알약 복용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 그러나 전립선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증상이 나빠지며, 전립선암으로 진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게 된다.

물론 수술로도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이 많이 부으면 요폐가 되고 하복부에 심한 통증이 오기도 한다. 이때는 오줌을 인위적으로 빼내야 한다. 요폐가 계속되는 동안에 신우, 요관이 확장해서 수신증(水腎症)을 일으켜 나중에는 신장 기능을 잃고 요독증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구토, 설사, 체중감소, 혼수상태를 일으킨다. 조속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신부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침·뜸으로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전립선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중에는 완쾌되기도 한다. 정통침뜸연구소에서의 처방은 경혈 삼음교, 족삼리, 신유, 명문, 중료, 기해, 중극 수도, 곡골에 뜸을 하루에 5장씩 하면, 하면서부터 오줌이 잘 나온다. 물론 침도 함께 병용하면 더 좋아진다.

(임상사례)

남 자 : 65세,
직 업 : 사무직
거주지 : 서울

(호소증상)

2018년 5월경 부터 오줌을 누는데 처음에 바로 나오지 않고 막힌듯한 기분이 들고 한참 후에 나오는데 소변 줄기가 세게 나오지 않고 힘이 없이 나오며, 곧 발등에 떨어질 것 같이 나옴. 또한 저녁에 수면 시 소변이 잤아 몇 번씩 잠을 깬으로 불면증에 시달림.

동네 비뇨기과병원에 진료한바 전립선비대 증상이라고 진단하고 알약을 처방해주고, 하루에 한 알을 복용하라고 함. 한 2년 정도 복용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음. 그래서 다시 병원에서 진료하였더니 전립선 암검사를 해 보자고해서 암 검사를 했더니 아직은 암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단 결론과 함께 다시 다른 알약을 처방하여 복용토록 하였음. 그 후 1년이 경과 하여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음.

(변증)

이 환자는 평소 앉아서 일하는 사무관리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여 활동량이 적고, 전립선을 압박하는 상태로 일을 많이하여 비교적 전립선이 압박을 많이 받아 나빠지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러한 전립선비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노쇠하여지기 때문이기도 함.

(처방)

구당 김남수 옹이 개발한 무극보양뜸(백회, 폐유, 고향, 곡지, 족삼리, 관원, 기해, 중완)에 경혈 신유, 대장유, 차료, 황골, 중극에 매일 5장씩 뜸을 하고 병용하여, 일주일에 한번 구당 기본 침과 둔압, 대혈에 자침.

(경과)

치료개시 저녁부터 빈뇨 현상이 줄어들기 시작함.

1개월 후 : 오줌발이 더 세지고 잔뇨가 완화됨.

2개월 후 : 소변이 잘 배설되니 아랫배가 가벼우며, 정력이 좋아지는 감이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함

3개월 후 : 잔뇨, 빈뇨 현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함

5개월 후 : 전립선비대 현상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뜸을 계속하여야 몸에 균형이 유지되어, 혈액순환도 잘되고, 모든 병에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

